

경제

광주 가전매출 10조시대 연다

수출 호조 대우일렉·삼성, 생산·투자 대폭 늘어 LG이노텍·엠코 등 부품사 매출도 급신장 예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이 광주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 가전업체 '빅3' 가운데 삼성과 대우 2곳이 광주에 자리잡게 됐다. 특히 백색가전의 수출 호조로 삼성광주전자와 대우일렉이 잇따라 투자와 생산규모를 늘리면서 광주 가전산업은 매출 10조원 시대를 내다보게 됐다.

특했다. 4분기까지 결산하면 3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내수금액도 3분기 기준으로 1조6천472억원을 기록했다. 삼성 가전은 지난 2004년 이후 줄곧 내수가 수출보다 많았다. 수출 1조5천873억원, 내수 1조9천737억원이었고 2008년 역시 내수(2조1천379억원)가 수출(2조574억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가전 수출이 내수를 앞지른 것은 세계 최대 시

장인 미국의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광주전자는 생산라인을 싹틔우기 가동하고 있다. 양면형 냉장고, 에어컨 등 백색가전 라인 가동률은 107%에 달하고 있다. 대우일렉도 지난해 매출 1조1천272억원을 기록했다. 광주공장에서만 600여명의 직원이 8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사업 조정을 통해 지난해 4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년간

에 13배를 키웠다. 여기에 올해 인천공장이 광주로 이전, 생산라인을 집적화하면서 매출이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대우일렉의 경우 내수보다 수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호조에 따라 매출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삼성광주전자와 대우일렉이 올해 6조5천억원가량 매출을 내고, LG이노텍과 엠코, 캐리어, 한국알프스 등 전자부품 관련 대기업들의 매출이 더해지면 '백색가전 메카' 광주의 가전 매출은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기아차 조지아공장 준공식'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소니 퍼듀 조지아주지사(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美 조지아주 공장 준공

10억달러 투입 ... 연 30만대 완성차 생산

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의 차 시장인 미국에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시장공략에 나선다. 기아차는 2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소니 퍼듀 조지아주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성차 공장(KMMG) 준공식을 열었다. 총 10억 달러(약 9천800억원)가 투자된 이 공장은 3년1개월의 공사를

거쳐 작년 11월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전체 부지는 261만2천㎡(79만평), 건물면적은 20만2천400㎡(6만1천평)에 달한다. 기아차는 현재 쏘렌토R를 생산 중인 조지아공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의 산타페 개조차를 교차생산해 연말까지 총 13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도 생산량을 18만5천대

로 늘리고 2012년 이후 신모델을 투입해 연간 30만대 양산 체제를 가동해 북미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기아차는 조지아공장의 완공으로 연간 43만대 규모의 중국공장과 30만대 규모의 슬로바키아공장을 포함해 연간 103만대 해외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조지아공장은 1천100여 명의 현지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연말까지 900여 명이 추가로 채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노노갈등' 새변수

노조 임금삭감 등 협상안 제시 일부 조합원 반발 ... 구조조정 발목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사가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노조 협상안에 대해 일부 노조원이 반발, '노노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26일 제9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 삭감 ▲상여급 100% 반납 ▲자연감소로 발생한 결원 311명(2010~2012년 정년 예정자) 단계

적 아웃소싱 ▲인력구조(T/O) 축소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복리후생 중단 및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워크아웃 졸업 후 교통분야 보전 방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 시점으로 산정, 체불임금 해소, 고용 안정 등 4개 항목의 별도 요구안도 내놨다. 노조안은 지난달 22일 사측이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기본급 20% 삭감, 상여급 200% 삭감, 2018년까지

단계적 아웃소싱, 인력구조(T/O) 축소 등에 대한 양보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속보를 통해 "노조 양보안에 대해 사측이 논의의 지가 없거나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전격 철회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사 모두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 노조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2일까지 실무협상을 통

해 풀려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2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3일 정리하고 예정자 통보를 강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 협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 노조 집행부와 대립하고 있는 '현장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개위소식을 통해 "노조안이 제시된 제9차 본교섭에 교섭대표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일부 교섭위원도 "임금 삭감, 아웃소싱 수용, 복리후생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교섭과 실무협상 참석을 거부, '노노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3월 경기 좋아진다"

광주·전남 107곳 조사 ... 수출·내수 증가 기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3월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연합체 107곳을 대상으로 '3월 중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 88.1보다 11.9P 상승한 100.0을 기록했다. 광주는 102.4로 전월(89.0)보다 13.4P 상승했고, 전남은 105.5P 오른 98.0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SBHI가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3월(101.9) 이후 2년 만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 전망 SBHI를 보면 생산(89.7→99.5), 내수(86.6→100.0), 수출(78.0→95.2), 경상이익(85.2→95.6), 자금(83.5→92.2), 원자재조달사정(90.2→97.8)이 전월보다 모두 상승해 중소기업 생산 활동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생산설비(105.1→102.2)와 제품재고(103.5→100.6)는 전월보다 하락해 과잉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용수준은 94.4로 전월 97.0보다 떨어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연합체 3월 경기전망 수치가 크게 나아졌다"면서 "음식료품과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신학기 효과 등 내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경총 내일 정기총회

'노사협력대상' 광주신세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염홍섭)는 2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 2009년도 사업 결산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제11회 노사협력 대상에 선정된(주)광주신세계와 (주)에스제이금속 등 2개 사를 비롯 (주)나영산업 유태현 씨 등 노사협력 모범 근로자 8명에게 표창도 전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부, 심각한 '제품결함' 강제 리콜

내년 제품안전법 시행령 제정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주체적

결함을 명시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최근 LG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

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리콜과 관련한 정부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리콜이 이뤄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부는 잘못된 제품에 대해 처벌만 하고, 리콜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 왔다"며 "시행령이 제정되면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로드북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Includes rows for various lottery numbers and amounts.

팝콘북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Includes rows for various lottery numbers and amounts.

코스피지수 1,594.58 (+0.68), 코스닥지수 507.03 (+2.64), 금리 (국고채 3년) 4.10% (-0.08), 원·달러 환율 1,160.00원 (-0.40)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임대.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상업 1,100만원.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임대.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목음식, 의류이탈,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피피리레스토랑, 전문식당, 의류이탈, 아웃도어 등.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